아동 성범죄자 광주·전남 첫 신상 공개

2명 얼굴 사진·주소 등 관할 경찰서·구청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4일 6세와 7세 여아를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B모(7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빙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앞으로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 종료 한 달도 안돼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남구 한 교회 주차장에서 김모(7)양과 이모(6)양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외손녀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P모(5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P씨에 대해 보호 관찰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 열람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P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외손녀(9)를 강제추행하고 외손녀가 반항하자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선고는 광주·전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네 번째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주소·얼굴사진·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 시·군·구에 사는 13세 미만 자녀의 부모와 유치원·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이 같은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행성눈병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는 4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각결막염이 유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에 유행성눈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전남·북과 경남·북,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유행성각결막염이 유행하고 광주, 대구 등에선 급성출혈성결막염(일명 아폴로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유행성눈병은 지난달 말부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져온 것으로 조사됐으나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행 시기가 예년보다 2~3개월 빠르고 전염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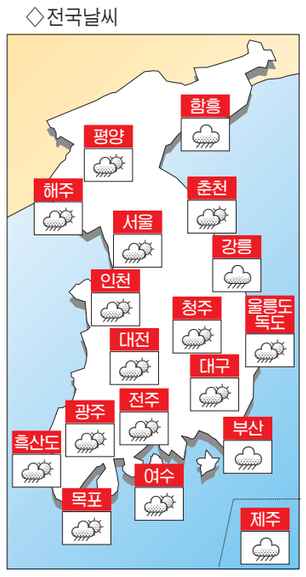
찌푸린 하늘

가끔 비가 온 후 개겠다.

6월 5일 (음 5월 2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비 후 갬	18~22℃
목 포	비 후 갬	18~21℃
여 수	비 후 갬	17~20℃
완 도	비 후 갬	17~21℃
구 례	비 후 갬	16~22℃
해 남	비 후 갬	17~21℃
장 흥	비 후 갬	17~21℃
고 흥	비 후 갬	17~21℃
순 천	비 후 갬	16~22℃
영 광	비 후 갬	17~21℃
진 도	비 후 갬	18~23℃
전 주	비 후 갬	17~23℃
남 원	비 후 갬	16~23℃
흑산도	비 후 갬	14~1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북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3:12 15:26 썰물 08:27 20:23
여 수 밀물 09:55 22:40 썰물 03:59 15:59

▲해뜸 05:18 ▲해짐 19:44 ▲달뜸 06:13 ▲달짐 21: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날 씨						
최저/최고	15/26	16/25	17/25	16/28	16/27	17/26

성폭력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거부

광주지법 배제 결정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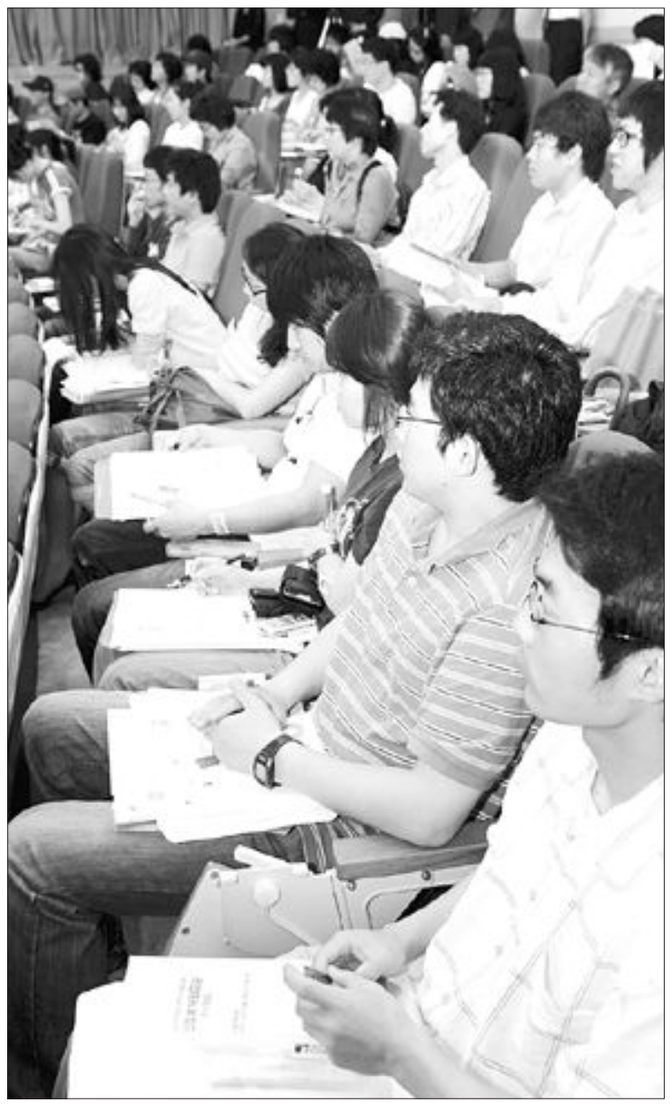
광주지법 형사3부(배형원 부장판사)는 4일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배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고, 피해자와 증인들의 법정 출석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11일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A(여·19)양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수법으로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4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가 같은 달 30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함에 따라 이를 제1형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치의학대학원 입학 설명회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2009학년도부터 첫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는 조선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4일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렸다. 의학전문대학원은 6월 수시모집 55명, 10월 정시모집 70명 등 총 125명을,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0월 정시모집 80명을 각각 선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행기록 조작 택시 판매 5명 적발

폐차 직전 택시의 주행기록을 조작해 팔아 온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4일 중고택시의 주행기록을 조작해 고액을 받고 팔아넘긴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S자동차매매업소 김모(47·서울시 양천구)씨 등 일당 5명을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 광산구 하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주행기록 45만㎞인 SM5 택시를 100만원에 매입한 뒤 주행기록을 8만㎞로 속여 김모(30·광주시 북구)씨에 450만원을 받고 되파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승용차 42대의 주행기록을 조작, 판매한 혐의다.

또 광산구 N카센터 업주 장모(47)씨는 김씨가 '메타방'이라고 불리는 불법계기판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계기판을 자신의 업소에서 교체해 주었으며, 한모(40)씨 등은 이를 알고도 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계기판 18대를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황김 이혼 방지 '이혼숙려제' 본격 시행

협의 이혼 때 자녀 양육문제 합의 의무화

대법원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熟慮)기간제'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도 의무화되며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 또한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혼숙려기간제**=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협의 내용에는 양육 비용 부담 주체와 부담 액수 및 방법,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이혼숙려기간제는 서울가정법원이 2005년 3월부터 시범 시행했으며 청주, 인천 등 전국 법원 가운데 80%가 시범운영한 결과, 이혼 신청 취하율이 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홧김 이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법 시행**=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 ·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역시 22일부터 시행되는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과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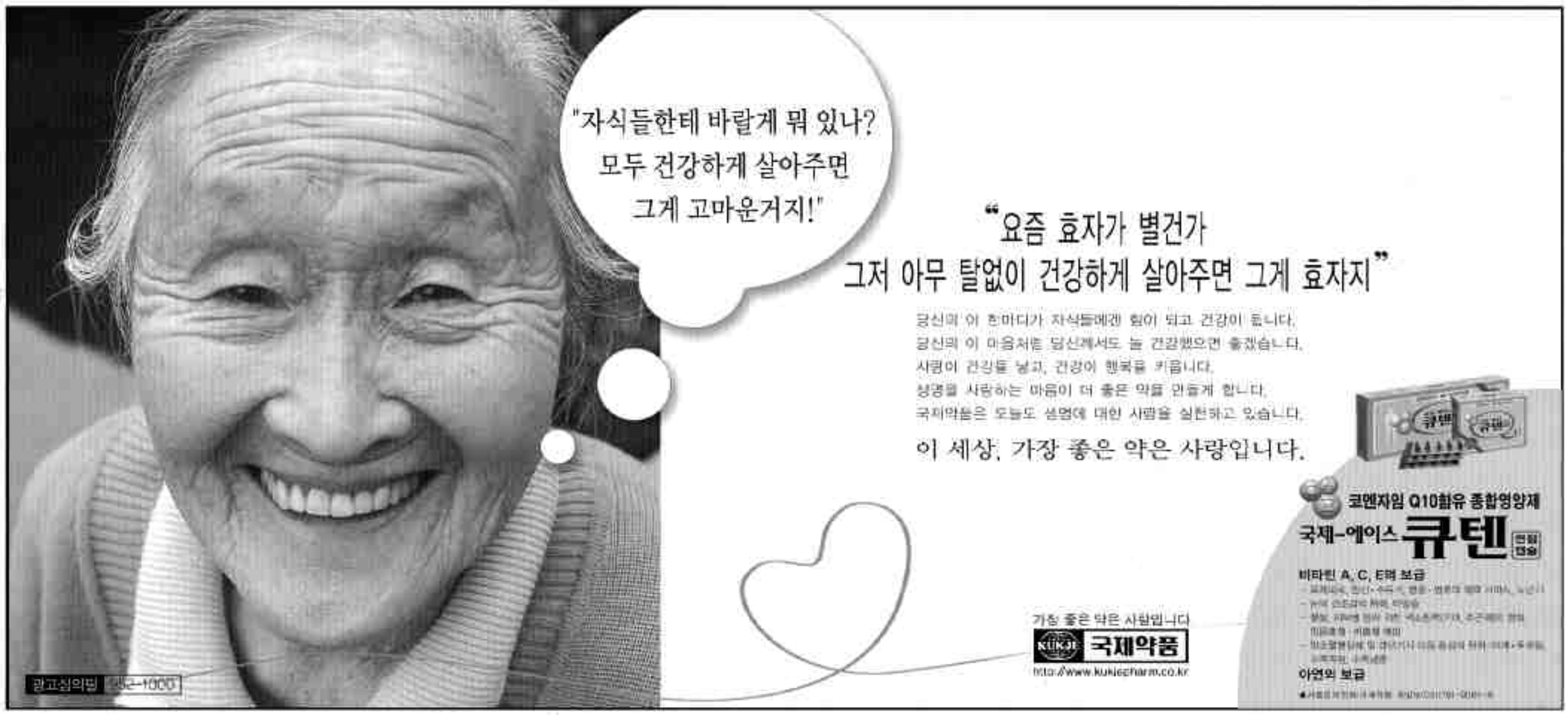
나라 위한 값진 희생 애국으로 꽃피우자

1천억대 재력가, 데릴사위 공모 성공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노처녀인 딸의 배우자를 공개모집했던 1천억대 재력가가 조건에 딱 맞는 데릴사위를 찾았다.

4일 결혼정보업체 ㈜좋은만남 선우에 따르면 1천억대 재력가로 알려진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지난해 6월 30대 후반인 딸의 배우자를 찾아달라며 이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위 모집 공고를 냈다.

A씨는 당시 공모를 하며 장남보다는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차남 혹은 막내를 선호하고, 유학을 다녀온 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만큼 딸의 학벌과 직업에 준하는 사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의뢰를 받은 이 업체는 커플매니저 50여명을 동원해 반년이 넘게 조건에 맞는 남성을 물색하도록 했고 올해 2월 A씨 요구에 맞는 사위를 드디어 찾아냈다.

차남인 이 남성은 40대 초반의 전문직 종사자로 A씨 딸과 4개월 교제끝에 지난달 양가 상견례를 올렸으며 연내 예식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